

# 영광 폐교 위기 학교 '美 연수'로 살아났다

분교 전략 흥농서초등 주민·동문 나서 美 학교와 결연  
매년 5~7명 연수 프로그램... 내년 학생 60명으로 늘어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영광의 한 농촌초등학교가 지역민과 동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되살아나 화제다. 26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국 여자골프 '여제'인 신지애의 모교이기도 한 흥농서초등학교는 2000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800명이나 됐지만, 주변에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의 이주로 지난 2014년 기준 학생수 17명의 분교로 전락했다.

학교측과 지역민, 동문들은 폐교 위기에 몰린 이 학교를 살리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학생 유치 전략으로 폐교위기를 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시애틀 학생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당시 미국과의 교류를 추진 중인 김양봉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서북미 호남향우회장 출신인 신춘호씨와 강한주씨 부부, 목포대학교수인 박민서 부부 등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박찬수 전 전남도의원(영광) 등과 협의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오랫동안 미국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옥순 전 타코마 한인회장의 도움을 받아

자매결연을 추진했다. 연수 프로그램 추진 소식을 접한 한국수력원자력도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탤다. 이 같은 노력으로 흥농서초등학교와 타코마 편입 초등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이후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월이면 학생 5~7명이 3주 일정으로 타코마를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행 첫해 2400만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미국학교에 다니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있으며, 홈스테이를 통해 미국 문화도 익히고 있다. 또 미국 학생들도 영광을 방문해 영전 등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전주 한옥마을에



신안군 통합건강방문 진료팀이 '섬! 섬! 찾아가는 순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찾아가는 섬지역 순회진료' 호응

신안군이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 중 심으로 '섬! 섬! 찾아가는 순회진료 및 통합 건강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경로당 130개소, 무의도서 20개소, 가정 방문 대상자 836명을 대상으로 이동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은 4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건강방문 진료팀을 배치하고 매 주 화, 수, 목요일을 지정해 경로당 이동 순회진료 및 치매검진, 만성질환관리, 재활, 금연, 신체 활동

등의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한방실 없는 무의도서 경로당에 침, 뜸 치료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2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신안군 낙지미끼 참게 구입비 50% 지원

신안군은 26일 "낙지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관내 위판장 활성화를 통한 신안 섬낙지브랜드화를 위해 불철 낙지잡이가 시자되는 오는 3월부터 낙지 미끼용 참게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낙지잡이(통발, 주낙)를 하는 어업인으로, 신안군수협(합해 송공협) 위판장에 낙지를 위판하는 어업인에 한해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어업인이 참게를 구입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판실적에 따라 구입가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신안군은 관내 낙지잡이 어가 중 800여 어가에서 통발과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포획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낙지미끼용 참게 전체소비량(연간 180톤)의 50% 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무안군 6000여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무안군은 "올해 22억4000만원을 투입해 2만6862톤의 유기질비료를 6000여 농가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기질비료는 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은 물론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2만3000여톤 19억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비중별로는 유기질비료 16%, 가축분퇴비 79%, 퇴비 5% 순이었다. 무안군은 올해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가의 필요시기에 맞춰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 군은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사업 신청자가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지원시 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농가 포기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신청 및 기 신청자 중 추가 배정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며,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속이 잘된 품질 좋은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무안군 주택 58세대 태양광 설치비 지원

전국을 대표하는 청정지역인 무안군이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무안군은 "다음달부터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무안군민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다.

무안군은 올해 58세대를 지원(태양광 3kw 설치기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배 확대됐으며, 설치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시설 완료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무안군 허가경제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해 설치비의 30%가 지원되며, 태양광 외에도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을 통해 푸른 무안 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안병호(왼쪽 세번째)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지역에서 세번째로 문을 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을 방문해 농기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손불면 대전리에 문 연 함평군 세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함평군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을 개소했다. 손불면 대전리에 들어선 서부점은 국·도비 13억60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081㎡, 건축면적 842㎡ 규모로 조성됐으며, 보관창고를 비롯한 수리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퇴비살포기 등 38종 93대를 비치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26일 "일손이 부족하고 농기계 값도 치솟은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해소와 기계화를 통한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것

처럼 아껴주시고, 많이 이용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기여하기 위해 민선 5기때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 무안군 내달부터 불법 야적퇴비 집중단속

무안군은 "축산농가 및 미등록 퇴비업체가 들뜬 야적 퇴비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방치 퇴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축산농가의 퇴비 무단방치 행위를

비롯한 퇴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유출하는 행위, 우천 시 침출수가 유출돼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관내·외에서 수집한 퇴비를 야적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또 이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 게

침 등 군민홍보를 사전에 실시해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자진처분을 유도하고 6월부터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환경오염 발견 시에는 군 산림환경과(061-450-5568)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 연구실, 학교 연구소, 최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10-7384-7800
- 010-6670-9800

###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전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성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앞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062-511-7800 062-527-7600

###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6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지) 총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6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